

한인뉴스

2015
12

VOL. 23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5



The fastest way to capture your idea

Off-Screen Memo Feature

NEXT IS NOW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너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h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20	1725	월,목,일	30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0010 ^h	수,토,일	300-200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Lovely Christmas

Lovely Sale

10 DEC 2015 - 10 JAN 2016

SPECIAL ENTERTAINMENT

LOVELY CHRISTMAS ON ICE

특별 설치된 아이스링크에서 신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세요

27 NOV 2015 - 10 JAN 2016

WEEKDAYS | IDR 50.000

WEEKEND* | IDR 75.000

*Public Holiday & Holiday Season (14 Dec - 3 Jan) are considered as Weekend



Join Now!
LOTTE Member Cards

신규 오픈



Pizza Express



Miya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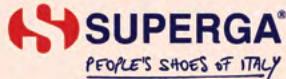
Yoogane



Melissa



Gonzo's



Superga



Alfons



Braun Buffel



Harnn

LOVELY BAZAAR

“명동” POP UP STORE

17 - 27 DEC 2015

패션과 라이브 스타이일 바자를
롯데에서 참여하세요

TRANSMARCO BAZAAR

8 - 20 DEC 2015

HUSH PUPPIES, NOCHE, OBERMAIN,
PLAYBOY, SEBAGO, DEMOCRATA, ANTTON &
CO, MIKAELA, WANDA PANDA

LOVELY 이벤트



19 - 20 DEC 2015

Get add. 10% discount
& 10% cashback as rewards!
We're open 'till midnight.
Let's shop 'till drop!



Indulge your craving
for sweets with various
kind of Ice Cream that
uniquely served for you!



ICHTHUS SCHOOL



Wisdom in Him ; Nurturing Excellence

익투스 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인성 개발 등을 강조하며 잘 짜여진 교과과정과 확고한 가치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며, 기업에서 필요한 협동과 조화등 사업적인 재능을 발굴하여 스포츠와 피트니스, 공연 및 시각 예술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익투스 학업과정은, 초/ 중등에서는 중등 캠브리지 국제기준에 맞춰 진행하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10학년에서 중등교육자격으로 이어져 11학년과 12학년은 에덱셀 국제 A레벨 과정을 가르칩니다.

각 반의 평균 학생수:

20 ~ 26 학생들

학교 학기 / 학기:

1학기 (7월 - 12월)

2학기 (1월 - 6월)

Address:

South Campus:
Jl. Car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Jakarta Selatan 12430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 Blok N No. 11,
Sunrise Garden
Jakarta Barat 11520
T: +62-21 581 2228

edexcel
Approved Centre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



동포 안내문

ISIL 관련 신변안전 유의 안내

1. 11.13(금) 프랑스 파리내 6개 장소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132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11.16 현재)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금번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ISIL은 트위터, 영상 공개 등을 통해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등에 대한 추가테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 금번 파리 테러 이후 서방권의 ISIL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반발한 반ISIL 연대 참여국 내에서의 ISIL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ISIL은 영문판 선전잡지 다비크 (Dabiq) 11호(금년 9월)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국가 및 국제기구(아랍리그, EU)를 ‘십자군 동맹(The Crusader Coalition, 반ISIL 연대참여국)’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금번 파리 테러를 ‘십자군’ 프랑스의 수도를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현재까지 ISIL이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를 자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징후는 없습니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다중 밀집 지역 및 시위 장소 방문 자제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http://idn.mofa.go.kr>)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8

논설위원칼럼/ 1세대 기업가정신
<김문환 논설위원>.....10

이모저모 한인사회.....12

CSR 포럼
한인회, 사이버한국외대와 교육협약식
KOFA 제 7회 재인니 범 한국 신발인의 날
2015 한인기업인 역량강화 연수

“인간의 잠재력 향상과 평등의 증진이라는 미션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의와 평화, 서로를 포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있는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첫딸 출산 후 페이스북 지분의 99% 기부를 밝히는 <딸에게 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2015년을 보내는 12월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건없는 진정성있는 기부야말로 감동이 있습니다. 딸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미래의 희망을 위해 선택한 주커버그의 자식 사랑법에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장 홍석영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발대식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안내문 소액부실채권회수 성공사례 2015 상공인의 밤 안보 강연회 우리소다라운행 NEW START KORINDO 장학재단, 장학금전달 KEB하나은행,2016 경제전망 세미나 리틀램유치원, 제주 한라대와 산학협력 협정서 체결 KOWIN, 차세대 UP&PODP 컨퍼런스 인도네시아국기원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분향소 옷칠아트 워크샵 KOICA소식 아세안경제포럼 JIKS소식 JIS소식 땅그랑 문화원 회화반 회원전 11월의 경제 브리핑.....38	지상갤러리 / 사갈,에펠탑의 신랑신부 <김선옥>.....42 12월의 행복에세이<서미숙>.....44 법률해설 / 종교 전도(선교)법 <이승민>.....46 284회 문화탐방기<김동현>.....50 신성철칼럼/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분석.....53 Jalan-jalan Jakarta 그 사람HarryDarsono<사공경>.....56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 박정자시인의 사진읽기.....63 생활정보
---	--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기업가정신

1978년 ‘5.16민족상 산업부문 본상’ 을 수상하는 최계월 사장

김문환/논설위원

함 박눈이 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월 27일 오후 3시, 47년 전 남부칼리만탄 주 바투리핀(Batulicin) 촌락에 태극기를 꽂으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출범에 시동을 걸었던 거목(巨木), 최계월 회장이 96세를 일기로 도쿄에서 타계하였다.

부음을 접한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그가 인도네시아한인사회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끼친 업적을 회상하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초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에 14년간 재임하며 초창기 한인개척사회가 초석을 다져가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1978년 ‘5.16민족상 산업부문 본상’ 을 수상하며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큰 상을 받은 데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1979년 몰아 닦친 2차오일쇼크가 에너지안보의 근간을 흔들며 놓자 당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도 관철하지 못한 일산 1만5천배럴의 인도네시아산 저유항유를 도입하는 기적을 이뤄내더니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인 ‘서부마두라유전’ 광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이 서부마두라 광권은 유니온사가 제시한 4천만불의 입찰 프리미엄(Signature Bonus)을 마다하고 정권실세인 베니 무르다니 장군이 주도하여 수하르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한국기업에 넘긴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재일교포 신분으로 한국국내에서의 족적이 분명하지 못한 탓에 그를 두고 갖가지 낭설이 난무하기도 하였다. 일본 자민당 계파 보스의 하명을 받아, 파푸아(당시 서부 이리안)의 인도네시아공화국 편입을 위한 중재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최회장은 수까르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다. 그리고 1962년 자카르타를 최초로 방문하여 수까르노와 포옹하며 사업이권을 약속받는다. 그 약속을 가지고 서울로 들어간 최회장은 소학교동창생이며 메이지대학 출신으로 먼저 귀국하여 거진해운이라는 해운회사를 경영하던 장석규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최회장은 유일한 자산인 ‘수까르노의 사업보증서’ 를 들고 이른 아침부터 장기영 경제부총리의 자택을 드나 들기도 하고, 마침 한일회담의 조속타결을 위해 도쿄에 들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도쿄를 방문중인 수까르노의 만남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1963년 3월 장충동 최고회의의 공관을 방문하여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게 되자 따는 당상이라며 그 해 11월 산림개발, 원유개발, 수산업의 업종을 내세워 서울 퇴계로 조양빌딩에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위층의 결재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총외환보유액이 4천만불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3백만불의 해외투자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었다.

1965년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선 정변이 일어나며 수하르토 우익정부가 들어서면서 1966년 영사관계가 개설되자 투자여건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직후 정보부시절 북한문제 전문가로 그를 보필하던 성균관대 이명영 교수의 적극적인 개진으로 1968년 2월 13일자로 외환관리규정 제63조에 의거 300만불의 해외투자허가가 재무부로부터 떨어진다. 이것이 대한민국 ‘해외직접투자 제1호’ 기록으로 남게 된다.

1988년 11월 ‘제5공화국 청문회’ 가 열리면서 YS의 최측근 중 한 명이던 통일민주당 서석재의원이 최성택 한국석유개발공사사장을 상대로 마두라 유전개발사업자금의 정치자금 전용혐의를(?) 추궁하고 있었다. 전임 이원조 사장과 최계월 회장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착수하라는 요구였다. 다음해 1월 검찰은 최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혐의 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그로부터 10년 후 야인이 된 서석재 의원이 마두라유전 지역과 그 뿌리인 바뚜리전 산림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大道無門’ 이라 새겨진 대통령 로고 시계 50여 개를 가져와 직원들 앞에 풀어 놓으며 10년 전 청문회 당시의 일을 사과하였다. 당론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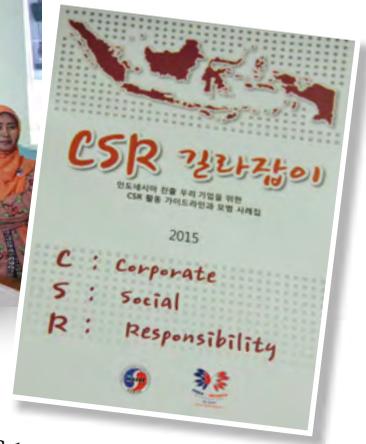
그런데 묘하게도 서석재의원의 보스였던 거산(巨山)도, 그 희생양이었던 거목(巨木) 최회장도 지난 11월, 1주일 간격으로 운명을 달리 하였다. 또 한 분의 거인(巨人)인 정주영회장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었다. 글로벌 경제불황이 심각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1세대 창업주들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은 분명 암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임자, 해봤어?”, “무조건 나가라! 안에 없는 것이 나가면 있다’ 로 상징되는 두 거인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고속철을 비롯한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권을 놓고 혈투를 벌이는 중국과 일본의 고래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다. 35년 전 일본으로 이미 배정되어 있던 원유선의 방향을 틀게 만들었던 35년 전의 투지와 유니온사 같은 공룡을 앞질러 석유광권을 끌어오던 저력은 이제 한낱 과거사일 뿐인가? 더욱 당혹스러운 점은 노동부, 이민국의 외국인 정책의 경색화로 인해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고, 심지어 불심검문으로 추방까지 당하는 한인수가 늘어만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손’ 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1963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을 예방한 최계월 사장

시장형 CSR활동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찾는다



주 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이 코트라와 함께 개최한 ‘2015 한국-인도네시아 CSR 포럼’ (11.17.(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이 양국 정부기관 및 기업, 언론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2011년 이후 5회째로, 금년에는 인니 투자조정청(BKPM)과 인니 중소기업부(KUKM)가 공동주관기관으로 추가 참여하였고, 우수 사회책임경영활동(CSR)에 대한 시상상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OVOP(1촌 1품, One Village One Product) 지원단’ 출범식을 함께 개최하여, 투자진출한 한국기업들과 양국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양국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KOTRA-인니 중소기업부간 체결된 MOU에 의거한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발전해온 결과물의 하나이다.

첫해에는 단순 판매지원에서 시작했으나, 한국의 1사1촌 운동을 접목시켜제품개발에서부터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기존의 기부 중심의 CSR에 비해 지속가능하고 자율적 성장이 가능한 시장형 CSR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개회사에서 “OVOP협력은 한-인니 양국간 경제협력의 발전은 물론, 오늘날 세계적 경제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OVOP협력단’에는 CJ, 삼성전자, 롯데마트, 하나은행, 이글, 무궁화유통, Qoo10, 일레브니아, 레젤홈쇼핑 등 9개 기업과, 한국정부기관으로 대사관과 코트라, 인니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부와 투자조정청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지원 경험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인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교육협약식



11일 수요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교육협약식을 체결했다.

한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사이버한국외대 조장연 부총장과 신기엽 한인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인회의 추천을 받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 신. 편입학하는 경우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수업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조장연 부총장은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야만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 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또한 유튜브 처럼 사용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많은 홍보를 한인회에 당부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실무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동남아의 기업환경, 투자환경, 인적관리 등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는 세분화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온라인교육이라는 장점을 살려 아

세안지역에서 거주하는 한국교민들에게 현지어를 포함한 현지생활환경에 대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ufs.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FA 제 7 회 재인니 범 한국 신발인의날

신만기 회장 4대회장으로 연임



지난 27일 제7회 재인니 범한국 신발인의날 행사가 땅그랑 소재 모던랜드 CC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코린도 승은호 회장을 비롯해 송창근 코참회장, 서영률 뿌라따마회장, 신기업 한인회장, 양영연 대한 체육회회를 비롯해 한국 신발협회 회장이신 트랙스타 권동철 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7번째의 뜻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참석 하기로 한 조태영 대사님은 김영삼 전 대통령 국상 중이라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KOFA는 초대 송창근 회장의 창립으로 6년을 거쳐 7년차에 접어들어 창립 당시의 약 70여 회원사에서 200여 회원사로 확대 되었다.

또 어려운 인도네시아 경제 여건속에도 불구하고 신발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각 회원사의 권익과 정보교류, 고통분담등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귀감이 되어왔다.

최근 회원사가 밀집되어 있는 반튼주에서 점차 스마랑, 살라티카, 수방, 수카부미등 지방화 이전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더 안정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키워나가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큰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신만기 KOFA 회장은 재인니 한국 신발산업의 발전은 각 회원사의 단결된 힘이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16년에는 KOFA의 꽃을 활짝 피우자는 비전을 보였다.

또 송창근 KOFA 초대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탄탄해지고 성장하는 KOFA의 모습에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권동철 한국 신발협회회장은 해외에서 한국 신발산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KOFA의 힘에 큰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유달리 이슈가 많았던 올해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신만기 회장을 비롯해 송창근 명예회장과 함께 정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우리 한인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법안의 변론과 노력으로 많은 이슈들을 해결 해 나왔었다. 이는 코파가 인도네시아 신발협회의 역할을 넘어 한인사회의 주축으로써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볼 수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한국 초대가수 금잔디와 남궁유진의 무대로 분위기를 더했으며 인도네시아 신발인으로 결성된 슈퍼스타의 공연으로 2015년 한 해의 노고를 함께 격려했다.

KOFA는 인도네시아 최대 직능 단체로써 한인사회의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그 역할에 사회적 책임감과 비전을 기대해 본다.

<기사제공: 코파의 힘>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인 역량강화 연수 성료’

- 1박 2일 간의 연수로 기업경영의 질 높여 -



재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클럽(이하 인니비즈클럽)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인 역량강화 연수가 지난 11월 28일(토)~29일(일), 자카르타 근교 구 능굴리스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는 ‘09년 창립 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미나, 기업 간 간담회, 우수 기업체 견학 등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간 경영·기술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30여 회원사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니비즈클럽이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인을 위해 주최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돈 버는 회사 만들기, 기업

혁신의 기술 ‘과’ 조꼬위의 딜레마와 우리의 비즈니스 ‘등 기업 경영에 내외적으로 필요한 주제’의 세미나가 편성되어 연수에 참가한 60여 기업인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인니비즈클럽 노태진 회장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세미나와 기업인 간의 상호교류 자리가 마련된 이번 연수는 우리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인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과 연수 수료식을 지원해 주신 주인니 한국대사관, 그리고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모든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발대식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20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11월15일부터 실시됐다.

지난 10월 2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모인 전 세계의 한인회장들이 이번 선거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행사는 지난 11월 3일 상해 한인회에서 발대식을 시작한 이후, 베트남 호치민, 일본 동경, 중국 대련, 미국 워싱턴DC, 애틀랜타 등 세계 각지에서 한인회 주관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에 동참하여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발대식’을 19일, 문화회관 2층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재외선거에 다 같이 힘을 모아 동참하자는 취지로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성별, 나이 등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인회는 물론 지역별 한인회, 종교단체, 예술 단체, 학생회 등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단체들이 총 연합하여 이 운동을 추진한다고 한인회 관계자는 밝혔다.

조규철 한인회수석 부회장은 “재외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어렵게 얻은 참정권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으니 재외선거 꼭 참여하여 모국을 돕자”고 강조했다.

옥미선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선거인 등록이 가능해졌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달려갈 테니 100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이뤄지며 내년 3월 14일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안내문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간략한 안내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는 내년 3월 30일 ~ 4월 4일에 실시됩니다.

이러한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국외부재자는 주재원, 임시체재자,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을 말하며,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 등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신고·신청 방법은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http://ova.nec.go.kr>)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ovindonesia@mofa.go.kr) 또는 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공관직원이나 접수요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편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사관 민원실외에도 주요 한인마트와 종교단체, 지역의 각종 행사시 현장 출장접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관 홈페이지나 각종 언론을 통해 출장접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내가 투표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나는 투표할 것도 아닌데...’ 라고 하기 보다는, 우선 나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5.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
옥미선 배상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안내>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 간 : 2015. 11. 15.(일) ~ 2016. 2. 13.(토)
- 대 상 :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국외부재자 신고
 -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재외선거인 신청
-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http://ova.nec.go.kr>
 - 전자우편 이용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ovindonesia@mofa.go.kr)로 전송
 - 기타 우편, 공관방문, 순회접수 등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 옥미선 (021)2967-2580(ext.22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부실채권 회수 성공사례

<국민신문고의 답변>

인도네시아소재 물류대행업체 H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의 물류대행업체 P사의 운송대금 미지급분을 해결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다.

H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의 조사대상이 국내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만 적용,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는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H사의 대응 조치>

이에 원고 H사는 피고 P사를 상대로 2년이 넘는 운송대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2015년 4월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2015년 11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건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월, 2월에 걸쳐 총 4회의 항공운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물품을 항공으로 운송하였다. 4건의 항공운송 건으로 받아야 할 총 운송대금은 미화 17,613.96불 이었다. 피고는 운송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2012년 7월에 그 일부인 미화 5000불과 12월에 미화 3000불을 지급하고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다가 2013년 5월 3일 이후로는 회신조차 없었다.

<법원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613.96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2.4.부터 2015. 9.9.까지는 연 6%, 2015. 9.10.부터 2015. 9.30.까지는 연20%, 2015.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인회에서는 인도네시아 H사가 한국의 P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판결문을 공유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소송을 주저하시는 비슷한 사례에 처한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인회(Telp. 021-521 2515)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5

2015 상공인의 밤



2015년 12월1일 물리아호텔에서 ‘상공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송창근 코참(KOCHAM,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내빈을 맞이하였다.

한인기업의 대변인역할에 힘을 기울이며 특히,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취업문제에 해결책을 모색하였던 2015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다.

신기엽한인회장은 이웃과 함께하며 화합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사하였다.

조태영대사는 격려사에서 “경기침체와 인력규제, 통관, 루피아사용의 의무화규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잘 버텨낸 한인기업인들께 박수를 보낸다. 코참의 부지런한 행보에 감사한다” 고 말하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경제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강현수석부회장은 코참의 2015 경과보고를 하면서 현장에서의 한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전달하고 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자 분주했던 일정들을 설명했다.

이어 조태영대사의 베스트 공관장상 수여식과 파크랜드 김영진팀장의 2015 해외근로자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특히 한국에서 온 KOTRA 청년들의 자기소개 시간과 청년들과 회원들 간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하고자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2016년에도 코참과 회원들은 함께 소통하며 나아감으로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최상관 교수 안보 강연회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는 27일,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층)에서 ‘우리나라 미래는 이상이 없나?’ 라는 주제로 최상관 교수 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월드옥타 인도네시아지회 차세대가 후원한 이번 강연회에는 한인사회 각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현상범 회장은 “오늘 강연을 통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해외동포라는 자부심을 더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응징 표격 5주년의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을 당하는 분들을 추모하면서 안보의식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인회 신기엽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한인동포들을 위해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무너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수상경력과 25,000회 이상의 애국 안보 강연을 해 온 최상관 교수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해병 장병들의 고귀한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민간인 희생자에게는 정중한 조의를 표명하기 위해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 5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가안보태세를 든든히 하



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로 96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6.25행사 및 사진전, 6.25전쟁 감상문공모전, Clean Indoneisa Campaign, Green Indonesia Campaign, 도전역사왕 퀴즈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왔다.

우리소다라은행 기업금융센터 개소 “NEW START”

21년만에 증권거래소에서 에너지빌딩 8층으로 확장이전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의 21년 법인등지를 마감하고 에너지빌딩에서 기업금융센터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11월 16일(월) 오전 우리소다라은행(은행장 Yanto M. Purbo 수석부행장 김동수)은 자카르타 수디르만에 있는 에너지빌딩 8층에서 기업금융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또 행장은 “인도네시아 TOP 20 위 은행을 이루고자하는 우리소다라은행의 비전 달성을 위해 고객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어려운 때에 한인기업도 다시 한 번 힘차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이 에너지 빌딩에서 ‘New Start’라는 표어로 개설한 기업금융센터 개소식에는 주요 고객사 대표들이 초청되었다. 또한 우리소다라은행은 이날 기업금융센터 개소식에서 대한글로벌 이부형회장을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했다.



우리소다라은행 기업금융센터에서 Yanto 은행장(좌)과 김동수 수석부행장(우)

우리프레스티지클럽 이진수 회장은 “20여년 동안 한인기업 진출 역사와 함께 해 온 우리은행이 새롭게 확장 이전하여 기업금융센터로 개설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는 그간 증권거래소(BEI)에 법인을 운영해 오다 지난 2014년말 소다라 은행을 법적합병하면서 ‘우리소다라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소다라 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 120여개 지점에서 2,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현지화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수 수석부행장은 “앞으로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haninpost>

KORINDO그룹장학재단, 인니대학 21 명에게 장학금 전달



Universitas Indonesia

1998년부터 매년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2015-2016 학년도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인도네시아대학교, 가자마다대학교, 보고르 농과대학교, 빠자자란대학교, 국민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1명으로 각각 한국어 또는 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정무웅 이사장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인

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에 인턴쉽이나 취업을 희망 하는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린도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인원 65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작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세종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으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현재 32명에 이르고 있다.



Universitas Gadjah Mada



Institut Pertanian Bogor



KEB하나은행 ‘2016 경제전망세미나’

10일,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과 주재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경제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가자마다 (gajah mada) 대학교 부속 경제정책연구센터 이사 A. Tony Prasetyantono 박사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준 박사가 ‘어려운 시기, 그러나 기회는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의 이재학 은행장은 개최사를 통해 “KEB하나은행으로 거듭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대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빠르고 스마트한 은행이 되어 성공파트너로 고객님들과 함께 할것”을 약속했다.

토니 박사는 최신 글로벌 경제이슈와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루피아 약세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위기를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구조 개선,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진행 중이며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교육 강화 등이 더해진다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예측에 따른 루피아화의 약세가 이어졌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거래 시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1달러=13,500루피아선에 머물 것이라 내다봤다.

김영준 박사는 신흥국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투자도 둔화되면서 2015년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대에 그칠 전망이지만, 2016년은 규제완화, 인프라 개발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5%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통화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로보조금 축소효과 소멸과 국제유가 약세지속 등으로 5%대로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경기는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급락효과완화로 1%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틀램 유치원과 제주한라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협정서 체결

해외인턴, 인재양성 및 교육 공동연구 국제산학 구성, 운영

리틀램유치원(원장,박현순)은 제주한라대학교(총장,김성훈)와 지난 10월 30일 해외인턴, 인재양성 및 교육, 공동연구 국제산학 구성,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를 체결했다.

박현순 원장과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이 서명한 산학협정서를 통해 양 기관은 국제산학 협약을 통한 인재육성 및 교육과정의 운영, 우수한 인재의 추천 및 위탁교육의 지원, 업무향상과 기업의 문화에 관한 지도 및 지원 등에 기여하기로 협의했다.

리틀램 유치원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제주한라대학교 부속 유치원과 상호협력 운영하며, 제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의 인턴 및 졸업생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대학은 산학공동 연구, 인



리틀램유치원 박현순원장과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총장

재육성 및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산학협정서 체결식 이후 박현순 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강당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치기도 하였다. 제주한라대학교는 동북아시아 직업중심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변화하는 대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PBL(문제중심학습법)과 S-PBL, Core-Skill TLP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코윈(KOWIN), 차세대 UDP&PCDP 컨퍼런스 개최

코윈(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본부 회장, 박현순)이 ‘2015 KOWIN 차세대 UDP&PCDP 컨퍼런스’를 지난 11월 7일, 8일, 1박 2일 동안 그랜드 꼬망호텔(Grand Kemang Hotel)에서 개최했다.

‘UDP&PCDP’는 ‘Undergraduate Development Program & Pre-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이다. 타이틀처럼 이번 컨퍼런스는 여성가족부 지원행사로 사회 진출을 앞둔 한국인 대학생과 유학생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을 돕는 양성 프로그램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의 차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컨퍼런스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아시아 인접 국가의 차세대 리더들의 현주소와 결의를 다지고 꿈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석한 21명의 아시아 차세대들은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코윈 박현순 회장은 행사를 여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 행사는 정부지원으로 코윈 인도네시아가 우수한 기획력으로 따낸 소중한 행사인 만큼 차세대가 미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사고와 태도를 습득하고 자신만의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리더십 교육과 직업교육을 준비하였다”고 전했다. 기조강연을 펼친 임현철 관세관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슬람 대학의 안선근 교수는 ‘인도네시아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매시간 인도네시아 최고의 강사진들은 아시아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각 강연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진행했다.

우리소다라은행 김두영 컨설턴트는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제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JAC리쿠르트먼트 인도네시아(JAC Recruitment Indonesia) 대표이자 여성 CEO인 마리꼬 씨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보라”라는 주문과 함께 개성 있는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참가자들의 도전에 부응해 P.A.K. Law Firm의 대표, 김민수 변호사, 코린도 그룹 내 KBS World의 번역작가이자 동시통역사인 허영순 과장과 코트라 인도네시아 신혜정 대리, 옥타 인도네시아지부 차세대회장이자 KB Insurance의 원영태 차장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실무진으로서 각각 5명씩의 참가자의 멘토가 되어 자신의 해외생활 경험과 참가자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주었다.

선배로서의 진정한 조언은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훌륭한 동행이었다.

구성점수, 참여도, 표현력, 창의력을 평가 기준으로 심사하여 각각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모든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과 선물이 증정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강연을 장식한 신희성 CJ 인도네시아 이사는 ‘CJ와 함께하는 인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실제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로서 구직을 희망하는 참가자들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실을 전달해 주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차세대 리더들에게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헤리티지 한국제션 이수진 회장의 인솔 하에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탐방이 이어졌다. 이 일정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알차게 마무리됐다.



2018년 아시안게임 개최국 인도네시아 국기원 방문

2015년 11월 23일 오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참모실장실에서 국기원 정만순 원장, 오현득 부원장은 대통령 참모실장인 ANDOGO WIRADI (육군 2성 장군) 에게 국기원 태권도 명예7단을 수여했으며 같은 날 오후, 체육부 장관실에서 인도네시아 체육부장관 IMAM NAHRAWI 장관에게 국기원 태권도 명예 7단을 수여 했다.

이번 정만순 원장 오현득 국기원 부원장 인도네시아 방문은 제18회 아시안 게임이 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Palembang 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안 게임에 태권도 품새 종목이 새로 추가되기 위해 국기원의 노력과 함께 인도네시아 태권도 활성화에 방문 목적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에 열릴 예정이던 대회 일정을 1년 더 앞당긴 2018년에 개최하기를 OCA에 정식 요청하였고 OCA는 이를 받아들여 2018년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개최국 인도네시아의 태권도 품새 종목 추가 요청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있다.

이번 국기원 원장 및 부원장 인도네시아 방문에는 국기원 시범단과 함께 했으며 인도네시아 국제 태권도대회 참관 및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참모실장 ANDOGO WIRADI 및 인도네시아 체육



부장관 IMAM NAHRAWI 장관에게 국기원 명예 7단 수여와 함께 인도네시아 태권도 발전과 함께 아시안게임에 품새 종목 추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행사에는 곽영민 국기원 인도네시아 해외 파견사범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인도네시아를 방문 한 오현득 국기원 부원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해외 공식 일정으로 대통령을 뵙지 못했지만 ANDOGO WIRADI 대통령 참모실장님과 함께 IMAM NAHRAWI 체육부장관님께 태권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제18회 아시안게임 품새 종목 추가에 대한 국기원 지원을 약속드렸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태권도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곽영민 사범은 “인도네시아는 태권도 수준은 태권도 강대국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가능성이 크고 저력이 있다. 인도네시아 태권도 발전에 평생 함께

할 각오로 우리나라 태권도를 인도네시아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 및 사진제공: WTN 월드태권도뉴스>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23일 9시부터 26일까지 대사관1층에 교민을 위한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22일 서거) 분향소를 마련하여 대사관 직원 및 한인회 회장단, 각계 동포들이 조문하였다.



옷칠아트 워크샵

‘천년의 신비 옷칠예술의 모든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18일 한국문화원 80여명이, 11월 19일 IKJ 예술대학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통영 옷칠미술관 김성수관장을 모시고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가졌다.





KOICA, 인도네시아 귀국연수생 총 동창회 열려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지난 20일 자카르타크라운 호텔에서 귀국연수생들의 활동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동창회를 열었다.

1992년에 처음 조직된 귀국연수생 총동창회(IAKI)는 연례 정기 모임으로, 코이카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창생들의 연수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의 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날 동창회에는 한국 대사관 이경철 공사, 코이카 인도네시아사무소 김병관 소장 및 린다 엔리 아니(연수총동창회 총무) 등 고위급 인사를 포함, 귀국 연수생과 인도네시아 정부 각 부처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ONE: Once Never Enough’ 라는 주제의 이번 총동창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가별, 글로벌, 석사학위 연수 참가자를 초청해 코이카 2015년 연수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각 동창회(총동창회, 석사과정 동창회, 수라바야 지역동창회, 여성 동창회)의 소개 및 연간 활동을 보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경철 공사는 축사에서 총동창회 연례모임이 귀국 연수생간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KOICA는 연수 동창생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총동창회 측은 “연수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풍부하게 갖춘 인재로서, 지역사회 혹은 다른 연수 동창생들과 함께 정보 및 경험을 공

유하고 있다” 며 동창회 일원들의 활동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워크숍, 세미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기관, 정부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격려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이날 동창회를 통해 연수프로그램의 사업성과 및 2016년 계획을 동창생들과 다양하게 공유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통해 연수에 참여한 인원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0여명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이카 KOICA 역량사업프로그램은 초청 연수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무 중심의 연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 기술 능력 향상에 큰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동 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국가이다.

행사는 코이카가 적극 지원하고, 동창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준비했다.

향후 진행될 코이카 초청연수의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동창생들 이외에도 연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개회 공연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전통 무술 뽀짝실랏과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의 사물놀이는 화려한 볼거리로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코이카는 한국에서 연수 과정을 마친 동창생들이 귀국 이후 현업에서도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동창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동창회가 인적자원의 허브(Hub)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KOICA,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워크숍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인도네시아에 파견한 해외봉사단원의 활동기관 대표와 유관부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봉사단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이카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워크숍’이 지난 11월 10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그랜티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와 교육문화부, 청년체육부 등 21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관계자와 봉사단원 활동기관 대표 등 약 85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과 사업방향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코이카 봉사단원 파견을 적극 요청중인 빠뿌아의 툴리카라 군수는 이날 워크숍에 직접 참가해 봉사단 파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각 기관의 대표들은 분과 토론에서 단원 활동성과 과제, 홍보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사단원들의 주요 활동사례, 인도네시아 봉사단 사업추진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은 “봉사단 사업은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국민이 우애를 나누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 봉사단원들을 자신의 가족, 동료로

생각하고 잘 지원해 달라”며 봉사단원들의 안전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봉사단 파견인원, 활동분야, 파견지역을 확대하고 코이카 봉사단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워크숍 참가자들은 파견된 코이카 봉사단원의 활동성과와 모범적인 태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봉사단 파견확대, 단원의 초기정착 및 안전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 지역이나 기관의 대표들이 서로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 자극과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봉사단 파견에 필요한 비자발급 등 행정절차 진행 촉진과 간소화를 위한 국가사무처와의 협력 MOU를 금년도 체결하였으며, 이 MOU에 근거하여 관련 개별부처와의 IA(이행약정) 체결을 계속 확대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9일에 진행된 관계 협력부처들과의 Joint Coordinating Committee(공동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 수요 발굴, 유관부처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체계화된 절차와 협력구조를 통해 계속적으로 봉사단원 파견인원 및 분야와 지역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세안 경제 포럼후기

강사:서정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아세안

글: 장나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4학년)

지난 목요일(12일) 자카르타의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아세안 경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세계한인 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강희중)와 헤리티지 코리안섹션(회장: 이수진)이 공동 주최한 이날의 행사에서 100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주아세안대표부 서정인 대사님의 강연이 있었다. 약 2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대사님께서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해, 그리고 올해 12월말에 출범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한국의 對아세안외교 최전선에 나와 계신 서정인 대사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 아세안이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국제적 입지 상승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중국에 이어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소위 “선발아세안국가”라고 부르는 6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과 더불어 “후발아세안국가”라고 부르는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포함한 10개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10개국의 경제 규모를 조합하면 총GDP는 2.4조억불이며 총 인구는 6억4천만명에 육박하여 아세안은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로써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세안 국가들은 심지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이루며 Post BRICs 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아세안의 국제적 입지가 상승한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 아세안은 각각 인구수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있다. 특히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에 위치



한 말라카 해협은 주요 해상 통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고, 세계적으로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핵심적인 국가가 된다. 또한,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중 ‘일로’에 속하는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아세안 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 한-아세안 관계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무역 파트너이며, (1,380억불, 흑자 312억불) 제2의 투자 대상 지역이자(44억불) 중동에 이어 제 2의 해외건설시장 (109억불)이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심화되어 매년 아세안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495만명,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은 180만명이다. 또한 아세안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28만명,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국민은 32만명이다. 더불어 아세안은 한류가 가장 왕성한 지역이기도 하며, 한국에도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아세안문화원이 부산 해운대에 세워질 방침이다.

◇ AEC(아세안경제공동체)란?

이와 같은 상승세를 배경으로, 아세안은 총 3개의 분야에서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1.안보협력의 확대를 지향하는 정치안보공동체(APSC). 2.인적 교류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사회문화공동체, 3.상품, 서비스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AEC)가 아세안의 “Three Pillars” 혹은 세 개의 기둥이다. 올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출범하는 AEC는 바로 이 중 세 번째에 속하는 분야이다.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자본 및 숙련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AEC 출범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거대한 아세안 통합과정 중 하나의 이정표(milestone)이자 기념비적인 중대한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통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ASEAN WAY” 라고 불리는 아세안만의 방식이 바로 이런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통합이며, 이것이 아세안을 유럽연합(EU)과 차별 짓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언제쯤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략 10년에서 15년 후 정도의 시기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변모시켜 진화하는 아세안의 특성상, 이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여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서정인 대사님은 강조하셨다.

◇ 한국의 對ASEAN정책: “아세안의 마음을 사는 외교”

올해로 출범한지 48년이 된 아세안은, 이제 강대국들과 어깨를 맞대어도 기죽지 않을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일례로 아세안은 여러 다자지역협의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포함된 ASEAN+3을 비롯하여,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참여),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여 8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도 ASEAN이 주도한다. 이것을 소위 ASEAN Centrality(아세안 중심성) 혹은 “ASEAN in the Driver’s Seat” (운전석에 앉은 아세안)이라고 부른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외교적 협상력과 입지를 강화시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커진 아세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대한민국의 對아세안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 등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강대국들이 아세안에 각종 투자를 유치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변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세안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한국이 아세안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기감마저 들었다. 이와 같은 필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인 대사님께서서는, 한국은 “아세안의 마음을 사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것, 한국만의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배고픔의 시기를 극복해나간 경험,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공통의 기억 등, 한국과 아세안은 여러 경험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고 하셨다.

필자는 이와 같은 대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였다. 분명히 한국만이 아세안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을 것이고, 필자 또한 이에 대해 고민하며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아세안의 마음을 사는 외교를 펼쳐나가실 서정인 대사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땀 흘리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을 응원할 것이다.



11월 17일~27일, JKKS 초등 미술전시회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KKS, 교장 김승익)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초등 미술전시회 개최식을 가졌다.

미술전시회는 학생들이 미술 수업 시간에 표현한 작품을 선별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실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목담채화, 콜라주, 조형원리를 이용한 디자인 작품 등의 평면 작품과 건축물디자인, 부채 만들기, 가면 만들기 등의 입체 작품 등 총 7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JKKS 어린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표현을 확인 할 수 있는 미술전시회는 11월 27일까지 본교 나래홀 갤러리에서 이루어진다.



두드림(Do Dream) 행사 개최



‘꿈을 향해 두드려라.

24일(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두드림(Do Dream) 행사를 개최하였다.

두드림 행사는 지난해까지 실시되던 꿈 프로젝트를 수정·보완하여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한 진로 탐색활동이다.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학년 별로 3학년 꿈 그리기 대회, 4, 5학년은 꿈 발표 대회, 6학년 나의 꿈 UCC 만들기 대회, 흥미직업 검사, 미래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발표해본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1월 18일 초등 교육과정 및 입학 설명회 개최

2015년 11월 18일(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설명회는 JIKS의 자랑인 균형 잡힌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전반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JIKS 초등교육과정은 기본 교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모국어 교육, 수준별·교과별로 세분화된 외국어 교육, 소질 계발과 인성함양을 위한 특기·인성 교육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소개되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감탄과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과 JIKS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유치원생들은 본교 영어교사들이 준비한 영어 수업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 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행정실에서 접수받는다.



코리안 클럽 UN Day BEHIND THE SCENES

(학생기자 김교빈)



JIS연중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불리는 UN Day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날이다. 음식체험, 각 나라 게임체험, 특별 게스트의 연설 그리고 UN Day의 꽃이라고 불리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올해도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한 코리안 클럽의 무대 뒤 현장을 습격해보았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우리 2015-16 코리안 클럽 회장님, 김재호(11) 학생! 간단한 인터뷰를 해보았다.



코리안 클럽 회장 김재호(11)

Q.올해도 코리안 클럽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UN Day 공연을 어떤걸로 준비했나요?

A.올해는 지전춤이랑 난타를 준비했는데요. 지전춤은 땅자들이 저승으로 갈때 편히 가라고 노잣돈을 주는 의미인 춤이에요. 난타는 예전부터 선배들이 해온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저희 퍼포먼스에 포함했어요!

Q. 난타는 오래전부터 계속 해와서 너무 식상한거 아닌가요? 무슨 변화를 주었나요?

A. 난타는 절대 식상하지 않아요! 식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외국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즐거워하고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공연 연습전에도 선생님들께서 난타가

좋았는데 이번에도 할거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이번 난타는 조금 더 전통적인 스타일의 난타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연습중인 난타의 핵심멤버 최정우(10)학생을 발견했다. 바쁜 연습중에도 흔쾌히 인터뷰를 응해주었다.

Q. 난타 너무 멋지던데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연하려면 많은 시간을 연습했어야 할 것 같은데...얼마나 연습했나요?

A. 한달동안 거의 18-20시간정도 연습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팀원들이랑 박자 맞추기 어려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니 거의 완벽하게 맞춰진 것 같아요!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해요.

Q. 기합소리가 인상적이던데...무슨 의미가 있나요?

A. 이번 난타 퍼포먼스에서 제가 기합을 맡게 되었어요. 기합은 특별한 힘을 내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일에 많이 사용되고 다른 팀원들이랑 박자를 맞추기 위해 쓰이기도 하죠. 처음 시작할때 기합소리를 내는 이유는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예요!

예쁘게 꽃단장중인 김은영 (11)학생이 보이는데요!



코리안 클럽 난타팀 (왼쪽: 최정우 (10))



코리안 클럽 지전춤 팀

Q. 작년 UN Day 공연으로 탈춤을 준비했는데, 올해의 지전춤은 뭐가 다른가요?

A. 탈춤 출때는 표정이 숨겨져서 표정연기를 안해도 되었는데 지전춤은 표정연기가 중요했어요. 동작들도 더 커야했고 여성스러운 동작들도 많아서 선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Q.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A. 한달동안 학교 끝나고 시간내서 일주일에 6시간씩 연습했어요. IB랑 병행하면서 연습하려다 보니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9학년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야할것 같은 마음에 부담이 컸어요. 근데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UN Day에서 지전춤과 난타를 선보일 예정인 JIS 코리안 클럽!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모든 UN Day코리안 클럽 멤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제 1회 재인니 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제 1회 재인니 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에서 이재성, 마성욱선수가 마스터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재인니 대한테니스협회(회장 박창규)주최로 11월 21일 자타르타 종합경기장 테니스코트에서 아라데 클럽(회장 김병곤), 인꼬클럽(회장 박창규), 아마르타클럽(회장 김상훈), 일반팀으로, 종합19개팀 38명이 출전했다.





알차고 재미난 국립 박물관 한국어 무료 투어

제대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한 가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어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상 : 박물관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선착순 25명

장소...Jl.Merdeka Barat No 12 Museum Gajah (코끼리 박물관)
모나스 광장 근처

일시...2015년 12월 19일 셋째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전후

인도웹과 Pagi 앱에 댓글을 달아 신청해주세요
헤리티지 밴드에서도 신청받습니다!

제 35차 헤리티지 탐방 조지언 퍼니처 공장

일시 : 2016년 1월 14일(목) 8시 45분
만남의 장소 : 치토스 (버스 대절)

30년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은 조지언 퍼니처 제작 공장을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도, 작품이라는 이름도 어색하지 않는 가구 조지언 퍼니처 제작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모든 일정 변경 가능)

9시 치토스 출발

10시 버카시 공장 견학및 설명

11시 이동

12시 쇼룸 견학 및 설명

12시 30분 간단한 점심 식사(김밥, 음료 제공, 르박블루스 쇼룸

Jl. Taman Cilandak IV No 47 021 750 6109)

1시 해산

신청 접수 : irenesujin@gmail.com /헤리티지 밴드(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인원 : 선착순 20명

회비 : 10만 루피아(비회원 15만 루피아) 비회원은 단1회 헤리티지 행사 참가 가능.

회원 가입: 65만 루피아/가족 4인, 35만 루피아/개인(2016년 8월31일까지)

헤리티지 도서관 / 탐방 참가시 회원 접수 가능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

땅그랑 문화원 회화반 회원전



회원의 90%이상이 리뽀 빌리지에 살고 계셔서 전시장소를 Amartapura 아파트에서 했다.

아파트에서 하니까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아주 많이 와서 그림을 보고 축하해주고, 아침 일찍 나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아빠들도 그림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되었다. 현지인들, 도우미와 기사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전시라서 큰 의미가 있었다.

전시는 캐주얼하게 하면서 카다록은 제대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공공장소인 아파트 로비에서 하기 때문에 3일만 했다. 3일 동안 400명 정도의 인원이 감상을 했을 것이다. 방명록에 이름을 쓰신 분이 250여명.

땅그랑 한인회에서 처음 전시를 한 것이고, 문화적으로 열악한 이곳에선 처음 하는 한인 미술 전시라고 한다.

아파트에서도 처음 전시를 해서 모두들 생소한 경험에 더 즐거워 하는 것 같았다.

취미로 그린 그림이 가족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보다 뜨거운 호응으로 다른 지역에 전시 제의도 받았다.

높은 관심과 격려로 회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가능하면 해마다 전시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다.

(기사제공: 땅그랑 문화원)





2015년 11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BI, 내년 경제성장률 5.2~5.6% 예측

중앙은행(BI)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5.2~5.6%일 것이라 전망했다고 현지언론은 25일 전했다. 올해 전망 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Agus D.W. Martowardojo BI 총재는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경기회복을 이끌고 인프라 사업으로 성장이 뒷받침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인프라 정비 촉진과 소비 개선에 따른 수입 증대로 말미암아 경상수지적자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현행 2%에서 3%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올해 3분기(7~9월) 경상수지적자는 40억1,100만달러로 GDP 대비 1.9%였다.

BI는 이 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금융 긴축을 유지할 방침이다. 장기적인 루피아 환율의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공품 수출을 강화하고 자원 수출을 억제해줄 것을 제언했다.

앞서 Jusuf Kalla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BI는 정책금리를 7.5%로 동결했다.

그러나 최근 법정 지급준비율을 8%에서 7.5%로 인하함에 따라 약 18조루피아의 유동 자금이 발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어 내년도 대출성장률은 올해 전망 대비 12~14%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19일 올해 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에 발표한 4.7~5.1%에서 4.7~4.8%로 하향조정했다.

Depok, 불법 이민자 248명에 압도

자카르타 이민국 사무소는 11월 19일, 데벡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248명에 도달했으며 이 중에는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많다고 발표했다.

데벡 이민국장 Dudi Iskandar는 “불법 이민자 중에는 마약 거래와 사이버 종교 보급으로 체포된 자들도 있다. 데벡 이민국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불법체류자들의 활동에 대해 긴밀한 감시를 요청받았다” 고 밝혔다.

국장은 불법 체류자 중 135명은 베지(Beji)에, 175명은 판쵸란 마스(Pancoran Mas)에 살고 있는

며 이들이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땅값이 저렴하며 시내와도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에 실시했던 단속으로 이란과 나이지리아 국적 마약 거래상들을 많이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37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당했으며, 더 많은 체류자가 자카르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Dudi는 “외국인 대상 감시가 더 철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들은 앞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 단언했다.

아세안 공동체 예정대로 연말에 출범키로

‘인구 세계 3위, 경제규모 7위’ 아세안공동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예정대로 연말에 출범한다.

이를 통해 1967년 아세안 창설 이후 48년 만에 회원국 간 각종 장벽을 허무는 단일 권역, 단일 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동남아 국가들의 목표다.

총 인구가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7위인 아세안 공동체의 등장이 세계 정치안보, 경제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아세안 정상들은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2015 쿠알라룸푸르 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이뤄진 아세안 공동체는 12월 31일 공식 출범한다.



21일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서로 손을 잡은 10개 회원국 정상들

아세안은 2003년 역내 통합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 작업을 해왔다.

정치안보, 사회 분야에서는 법치를 기본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 사회 불안 요인과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국 제도와 정책 집행의 독립성은 현대로 유지돼 상징적인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아세안 공동체의 중심축은 경제 통합으로, 회원국들은 그동안 역내 관세를 대부분 폐지하며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라는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해도 회원국 간 제도적, 문화적 이질성은 물론 경제 격차가 크고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히 실질적인 경제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10년간의 실행 구상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나질 라작 총리는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세안의 시대로, 아세안이 아시아의 세기를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안따라(Antara)

노조연합, 30일까지 “최저임금 인상폭 25% 요구” 시위 벌인다

Pulogadung 에 경찰 1,175명 배치, 총파업 시작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이 경고한 총파업이 24일 시작했다.

같은 날 오전 동부 자카르타 경찰청은 빨로가등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병력 1,175명을 배치했다고 현지언론 ANTARA는 전했다.

그러나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노조는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시위세력이 모이거나 특별한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오후 1시 50분경 경찰당국은 밝혔다.

시위대로 인하여 빨로가등 지역에서 말미암은 가장 큰 영향은 노조들이 자카르타 집결지로 향하는 길목에 발생한 대규모 정체현상뿐이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이동으로 인한 정체현상은 괜찮다. 다만 노조의 강압시위(스위핑, Sweeping)나 고의적인 도로통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지역 노조들의 집결지는 Cakung Barat 톨게이트, Bundaran Pajak, 그리고 빨로가등공업단지의 1, 2, 3 정문 등이다. 이들 노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의 노조들과 동시에 시위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SPI의 사이드 익발 대표는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의 주요 공업단지, 항구,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서 한달 한시에 시위대가 활동할 것이며, 동시에 중부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을 비롯한 각 지역대표의 청사 앞에도 시위세력이 집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노조 집결지로 알려진 곳은 자카르타, 빨로가등, Sunter, Cakung, Tanjung Priok 등이며 전국적으로 400만여 명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KSPI를 주축으로 모인 전국의 노조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패키지를 통해 발표한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폭 계산법(정부령 2015년 제 78호)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전년도) 경제성장률+(전년도) 물가상승률)



24일, 자카르타 Pulogadung 공업단지에 모인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안파라(Antara)

'자카르타 테러 예고' ... 촉각 곤두세운 경찰

경찰은 22일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자카르타 경찰 본부와 대통령 궁 테러 공격 예고 영상에 대해 조사 중이다.

영상은 인도네시아의 한 테러 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도주 중인 테러 조직 리더 산또소의 사진만을 정지된 화면으로 보여준다.

영상에 인도네시아어로 녹음된 음성은 “IS를 상징하는 검은 깃발이 대통령 궁 하늘 위를 날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자카르타 경찰 본부를 파괴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가까이에 있는 국가 경찰 본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 술라웨시 뻘소(Poso)군 외부 정글에 기반을 둔 동부 인도네시아 Mujahidin(MIT) 테러단의 리더인 Santoso는 IS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무자히딘 테러단은 특히 자신들을 제압하려는 경찰 특수부대를 목표 삼아 공격한 사례가 있다.

자카르타 경찰 서장 Tito Karnavian은 “경찰은 테러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카르타 주변 지역으로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현금 갈취한 이민국 직원과 일당 체포

자카르타 경찰은 중부 자카르타 이민국에서 대만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이민국 직원과 공범 4명을 체포했다.

11월 2일 피해자인 대만인 위엔 밍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며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다섯 명의 용의자는 위엔에게 자신들이 국가 경찰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접근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조지폐 혐의와 또 다른 용의자 NS와의 간통 혐의로 인해 더는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경찰 형사과 Krishna Murti는 “그 후 용의자들은 피해자에 100억 루피아를 요구했다.

경찰은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다섯 명의 용의자를 수배 중이다” 라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은 형사법 제368조에 의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샤갈, 에펠탑의 신랑신부



작가 : Marc Chagall (1887~1985)
작품 : 에펠탑의 신랑신부
(Les mariés de la Tour Eiffel)
oil on canvas, 136.5 x 150cm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뿜다...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1887년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이며 프랑스 화가. 피카소와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마르크 샤갈. 그는 유대인 거주지역인 비테프스크에서 청어와 야채를 파는 부모의 9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궁핍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사랑 많고 따스한 성품으로 성장했다. 샤갈에 대해서 “소박과 세련, 온건과 오만, 시기와 관대, 우울과 쾌활이라는 모순적인 성격의 복합체” 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스탈린 대숙청과 유대인 학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고난과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초라한 유대인 화가로 살면서도 시인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림 속 인물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녔기 때문일까. 삶의 고비마다 봄눈을 맞으며 귀똥만한 겨울열매를 올리브빛으로 물들였기 때문일까.

샤갈의 마을에서는 모두가 날아다닌다. 연인들, 시골 유대인들, 소와 닭, 염소와 물고기, 촛불과 집들이 무중력상태로 하늘을 날아간다. 해와 달, 별들도 마을 풍경을 배경으로 떠다닌다. 그뿐 아니다. 샤갈의 그림에는 슬라브의 환상과 유대인 특유의 신비감이, 현실과 꿈이, 시대의 어둠과 희망이 뒤섞여 있다. 미술사조로 볼 때도 입체파, 야수파, 상징주의, 표현주의가 혼재되어 있다. 파란색을 배경으로 온갖 색들도 풍요롭고 몽환적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샤갈의 마을이라는 아득한 공간에서 날아다닌다. 그런데 묘하게도 따뜻하고 평화롭다. 샤갈의 블루에선 피카소의 블루에서 맛볼 수 없는 푸근한 신비와 사랑이 느껴진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깔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 그들은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난다.” 고 샤갈은 말한다. 화면에 혼재하는 그 모든 개념과 대상과 색들을 샤갈만의 은유와 따스한 시선으로 재구성했다.

샤갈은 고향 마을에서 벨라(Bella Rosenfeld, 1895~1944)를 처음 본 순간부터 평생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다. 벨라는 시적 영감과 은유의 원천이었다. 그는 유난히 신랑신부와 연인들을 많이 그렸다.

<에펠탑의 신랑신부>는 러시아 혁명 이후 파리로 이주한 후에 고향 마을과 파리의 풍경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다. 연인을 태우고 낙원으로 날아가는 수탉. 파리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두고 온 고향 마을. 한 천사는 꽃다발을 들고 하늘을 오르며 또 다른 천사는 촛대를 들고 마을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 둥근 태양과 밝은 분위기, 음악, 수탉 등은 신랑신부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밝은 분위기다. 사랑하는 벨라와 파리에 정착하면서 사랑과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수탉은 샤갈 자신이며 그의 그림에는 늘 고향 마을이 담겨있다. 그는 파리에서 마음속 행복한 감정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리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했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녀는 푸른 공기와 꽃과 사랑과 함께 들어와 캔버스 위를 날아다닌다.”

노년에 그는 환상적인 색채의 유리와 또 하나의 재료인 빛이 어우러지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매료되어 많은 작품을 남겼다. 98세의 샤갈이 남긴 유작은 <또 다른 빛을 향해, 1985>였다. 시인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색채로 한 세기에 걸쳐 작업을 한 샤갈.

샤갈의 마을 어디에선가 지금도 눈이 내리고, 샤갈과 벨라가 또 다른 빛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한해가 저물고 있는 노을 끝에서...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황홀한 저녁노을을 담은 각양각색의 구름들이 고고한 자태로 열대의 서쪽하늘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서서히 떠나려한다.

한해가 저물고 있는 노을 끝에 서있는 느낌이다. 차창밖에 밀려든 노을은 짙은 빛으로 붉게 물들며 마지막 춤사위를 펼친다. 자신의 몸을 빨갛게 불태우며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저녁노을처럼 최선을 다한 삶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때로는 생존하는 모든 것을 시간의 끝으로 물고 가는 야속한세월 탓에 매년 이맘때면 행여 스스로도 모르게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었는지 자책과 아쉬움으로 마음한구석이 시려온다. 한해의 365일을 제대로 결산하고 나서야 비로소 새해를 설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자성이 앞선다. 내일의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나은 날들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인생으로 다가가는 검허한 걸음일 것이다.

바쁘게 떠밀려가는 12월에 동승해 잠시 속도를 멈추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본다.

인도네시아 한인뉴스에 <행복에세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다섯 해를 앞두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사를 밝은 마음으로 읽어내는 일이라는 걸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해가 거듭될수록 책임감 또한 가중됨을 느낀다. 한해를 보내면서 세상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사물과 환경일 수도 있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는 숙성된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늘 새롭고 깨어있는 작가로 거듭나 2016년 새해에는 좀 더 가깝게 행복의 정서에 다가가는 이야기로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 들어도 기쁜 말은 내 글을 잘 읽고 있다는 독자를 만나게 될 때다. 늘 만남으로 이어지는 사회이고 칭찬의 말에 익숙한 현 시대에 살면서 무슨 특별한 뜻이 있으라마는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찬사를 듣는 사람의 몫이리라. 착각도 자유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글이 좋다는 말에 쉽게 감격하며 때때로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오래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다.

착각이란 어쩌면 글을 잘 쓰는 작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나만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라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야 한번 뿐인 인생에서 행복한 착각도 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올 한해도 서울과 자카르타를 오가며 바쁘게 보냈던 것 같다. 서울 집에 있을 때는 오랜 세월 해외에 사느라고 못 만났던 친구들이며 친척들과 자주 시간을 보낸다. 또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우리나라 사계만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자연과 만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나는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에 자주 의존하고 마음을 쉬어가는 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도 좋고 자연은 더욱 좋다.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흔탁한 정신을 세척하는 청량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혹시나 욕심을 향해 치닫게 되는 마음도 자연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고 털어버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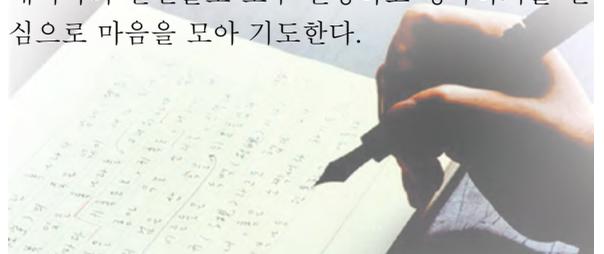
이 늦은 가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의자에 앉아있는 일이다.

홍윤숙의 시 [이 가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의 한 부분이다. 신(神)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운 고독이라는 이름과 잘 어우러져 보인다. 한해를 보내면서 읽게 되는 시는 어쩐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짧고 단순하게 느껴지는 시어지만, 자기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모두의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오기 때문일까? 의자에 앉기까지의 술한 어려움과 노력을 잊고 방만(放漫)하지는 않았는지, 앉아있을 자격이 있고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그런 생각을 해보니 쉽게만 여겨지던 그냥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이 진정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TV를 켜거나 조간신문을 펼치는 일이 덜컥 겁이 난다.

세상은 온통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양심의 부재로 벌어지는 살벌한 소식들 뿐이다. 이슬람 무장세력인 IS의 잔인한 테러소식과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의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다보면 너무도 두렵고 가슴이 텅비어온다. 국내외는 물론 세계 속의 경제난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삶의 풍경들이 그렇게 생활의 한 부분인 낭 무심히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어떤 나라도 테러위협에서 안전지대가 없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신이 인간을 시험 할 때는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내린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테레에서 보았듯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테러리스트들의 무자비한 살상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가운데도 서로 뭉쳐지고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한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이기도 함을 신은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모든 사욕과 이기심을 떠나보낼 때 신은 어쩌면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것이라도 좋다. 그 모두라도 좋다. 신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다만 그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되도록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뿐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간절히 소망하건대 더 이상 이 세상에 테러가 존재하지 않는 평온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하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 테러라는 잔인한 살상으로 참담하게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울했던 모든 일들이 떠나가는 2015년의 해에 편승해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를...안개가 걷히고 수평선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새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이곳 인도네시아의 한인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



종교전도(선교)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 선교사 5백여 명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는 없으며, 헌법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약 86%(*2010년 통계)가 이슬람신자인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이슬람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종교란이 있고 주민등록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교란이 비어있는 KTP는 용납하지 않으며, KTP의 종교란에 반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국민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이래 Soekarno(수카르노)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이었으나, Orde Baru(오르테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로 인정되어 있으며, 각 종교명절을 법정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는 종교전도(선교)를 실정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의하여,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까르따/자까르따 헌장)이라고 부르며, 이 자까르따 헌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 1.1. Ketuhanan Yang Maha Esa(유일신 신앙)
-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인간박애 정신)
- 1.3. Persatuan Indonesia(인도네시아 통일국가)
-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Perwakilan(대의정치),
- 1.5. Keadilan Sosial(사회정의)

* 자까르따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정은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고,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tno 대통령 집권 시인 1965년에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

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권유하거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으로 간주되며 2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동 결정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여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찬반 변론이 있었으며 2010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4. 종교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형법 제165a조는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용,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4.2.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5.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 5.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 5.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 5.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옷, 음식, 음료,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 5.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플렛, 불레틴, 잡지,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 5.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 5.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 5.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6. 전도 및 종교 단체에 대한 외국 원조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11호

- 6.1. 외국 원조란 인력, 물질, 재정,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 6.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혹은 전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기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6.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 6.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 라고 그냥 권유하거나 물건, 돈, 옷, 음식, 음료, 치료,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 6.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팜플렛, 잡지, 불레틴, 책 혹은 다른 형태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 6.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

6.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원회(PKK-TLN)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6.5.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6.6. 주지사,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의 활동,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외국의 지원을 사용하는 일,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7. 종교건물 건축에 관한 법

종교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7.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FKUB)을 결성한다.

7.1.1. 주 FKUB의 임무

7.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7.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7.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7.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7.1.2. 시/군 FKUB의 임무

7.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7.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7.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7.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7.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천을 한다.

7.1.3. FKUB의 구성

7.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대 21명,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대 17명으로 한다.

7.1.3.2. 주,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원이 있어야 한다.

7.1.3.3. FKUB에 위원장 1(한) 명, 부위원장 2(이)명,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7.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7.2.1. FKUB 자문회의 임무

7.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7.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7.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7.2.2.1. 회장 : 부주지사

7.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7.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7.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7.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7.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7.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7.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7.2.3.4. 회원 :관련 기관장들

7.2.4. 주,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7.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7.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 제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종교 건물 건축이 해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7.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7.3.3. 종교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구비 요건 과 기술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7.3.3.1.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7.3.3.2.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지역주민 최소 60(육십)명의 동의서.

7.3.3.4.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7.3.3.5.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7.3.3.6.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했으나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 (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한다.

7.3.4. 종교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4.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용 허가 절차

7.4.1.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건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 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7.4.2. 신청서 구비 요건

7.4.2.1. 신청서

7.4.2.2. 건물주인의 사용 동의서

7.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7.4.2.4. 시/군 FKUB에 보고서

7.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7.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7.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7.4.3.2. 시/군 FKUB의 소견서

7.4.4. 임시사용허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 (구청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내는 균형과 공존

김동현 (충남대 철학과)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다. 뽕작, 반둥, 족자카르타를 다녀 오고 나서야 자카르타를 둘러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처럼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지 않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부터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다.

방패, 가루다, 다양성 그리고 적도

오전 8시에 한·인니문화연구원에 도착하였다. 투어를 위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과 우선 연구실에 앉아 사공경 원장님의 간단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인도네시아 문장이었다. 문장은 가루다 가슴을 방패가 보호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는 힌두의 신 비슈누가 타고 다녔다고 한다. 방패 모

양의 마크 속에는 뽕짜실라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이 담겨있었다.

인도네시아는 다민족 다문화가 어우러져 구성된 국가이다. 또한 힌두, 불교, 이슬람, 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들어와 각자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 가운데 서로 간의 반목으로 인해



겪었을 갈등 사이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선택 한 것은 다름 아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틀을 정해 무조건적으로 맞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의 뿌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줄기로 뻗어나가 그 끝에서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뻗쳐 나가는 가지로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방패 모양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굵은 검은 선에 대한 것이었다. 이 검은 선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를 가로지르는 적도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해 놓은 것이었다. 사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전에는 적도 부근의 위치나 사시사철 더운 날씨를 불평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양에서조차 이들의 삶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인의 삶

묘비박물관은 신분 이 높은 네덜란드인 가톨릭교인을 위한 묘지였다고 한다.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어떻게 살았던 그들은 지금 말 없이 누워 있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평한 것인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국립박물관으로 향했다. 국립박물관은 구석기 시대

의 생활상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의 가옥 모형, 그리고 바틱과 도자기 같은 문화재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의 경우 한반도 북부와 남부의 기후 차이로 인한 구조의 차이 외에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동일한 형태를 보이지만, 인도네시아 가옥은 섬마

다, 그리고 부족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뱀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가옥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둥을 네모나게 가공한다든지, 부족의 전통문양을 처마에 새겨놓는 등 인도네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 수만큼이나 다양한 가옥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박물관의 한편에는 힌두교와 관련된 석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이슬람이 이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힌두교와 불교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발리는 현재 힌두교) 모든 사물마다 영혼이 존재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신론, 범신론의 힌두교.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다양성 존중에는 힌두교의 이런 신앙적 바탕도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관경과 공존

박물관 이후 점심식사를 한 뒤 우리가 향했던 곳은 동남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인 Mesjid Istiqlal이었다. 모나스 광장의 북동쪽에 있는 이곳은 1955년에 건축위원회가 디자인 공모를 하면서부터 구상이 시작되었는데, 공모전에서 채택된 디자인은 다름 아닌 프로테스탄트 건축가 F.Silaban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교체 없이 건설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무슬림이 많은 국가였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다시 한 번 포용, 화합을 중시하는 인도네시아를 알 수 있었다.

프로테스탄트였던 Silaban은 그의 디자인 속에 완벽하게 이슬람을 녹여냈다. 열두 달 혹은 마호메트의 생일을 의미하는 열두 기둥, 코란의 6666구절을 상징하는 뿔족탑의 높이 6666cm.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세 가지 문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었다. Silaban에 대한 설명이 없었더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인도네시아임을 잊을 뻔 했다.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이슬람국가가는 아니다.

우리가 입장할 당시는 기도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슬람 신도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둥 옆에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슬람 사원의 맞은편에 성당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200년 된 임마누엘 교회는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이슬람 사원, 개신교 교회, 가톨릭 성당이 가까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은 신선했다. 오늘날 세계는 종교적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만, 이곳 자카르타에서 만 큼은 온화한 날씨, 맑은 하늘 아래 평화로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커피의 철학



투어의 마지막은 영화 관람이었다.

제목은 ‘Filosofi kopi’ (한국 개봉명:커피의 맛)로 인도네시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커피와 관련된 영화다.

인도네시아는 커피 4번째 생산국으로 높은 품질의 커피콩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커피란 차와 마찬가지로 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식민지때 들어와 플랜테이션을 통해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흘렸던 땀과 노력, 정성들이 지금의 인도네시아 커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지만 커피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노래가 되고 향기가 되었다. 또한 양질의 커피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람들의 고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향기로운 커피 한잔과 함께한 영화 관람의 시간까지, 오늘의 투어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

약 10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한·인니문화연구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올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많이 회자된 내용은 제조업의 중부자바 이전과 비자 취득의 어려움이었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저임금 노동집약 업종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됐다. 또 인도네시아 당국이 외국인 체류 허가와 세무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데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침체를 이어감에 따라 사업을 접고 귀국하는 한국인도 증가했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50여 년이 지나는데 동안 크고 작은 기업을 많이 세웠고 이 중에는 탄탄하게 자리잡은 기업이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업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노하우를 살펴보고 향후 한인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제식민시기 인도네시아 진출

다수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할 시기는 일제 강점기다. 그 이전에는 한인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1942년에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식민지 조선의 청년과 부녀자 등 수만 명을 인도네시아에 투입했다. 이들은 군인, 군속, 간호사, 군위안부 등 강제 동원된 한인들이었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고 일부 한인들은 귀국했으나, 일부는 배편이 부족해 귀국하지 못하고 수천명이 인도네시아에 잔류. 정착해 인도네시아 사회에 동화됐다.

코데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은 1968년이다. 대한민국 해외투자기업 1호인 한국남방개발(코데코)이 남부 깔리만탄에 원목사업으로 진출했다. 뒤를 이어 코린도가 원목사업에 진출해 합판, 제지, 오일팜 농장, 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한상기업으로 성장했다.

1973년에 대상그룹의 미원인도네시아가 진출해 한국 사상 최초의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1970년~1980년까지 무역과 건설 분야로 투자가 확대됐다. 1980년대 현대건설이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을 연결하는 자고라위 고속도로를 건설해 한국 건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980년 초 우리나라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업체들이 대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한인사회가 1만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1990년에 LG전자 1992년에는 삼성전자 등 전자기업과 키텍코 등 에너지 기업이 각각 진출했고 최근에는 철강, 조선, 타이어, 석유화학, 금융, 유통, IT, 한류 관련 화장품과 외식업 등 투자업종이 다양해졌다. 저임금을 활용하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봉제와 신발을 필두로 전자, 제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또 신발, 봉제와 등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이 부문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경제침체, 인건비 상승, 규제 강화에 직면한 제조업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기업의 업종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주력업종은 제조업이다. 최근 신발, 봉제 등 한국계 노동집약업종 기업들이 자카르타 외곽에서 자바 섬 중부 지역으로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 때문이다.

한국계 신발업체인 KMK그룹, 파크랜드, 성담 등 대형 업체들이 중부 자바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한국계 봉제 업체들도 20여 개가 이전했거나 공장을 짓는 중이다. 자카르타 외곽 반뜰 지역에서 2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파크랜드는 최근 중부 자바주 즈빠라 지역 30여만㎡ 부지에 1억2천만 달러(약 1천400억 원)를 들여 70개 생산라인 규모의 제3공장을 착공했다.

지난 수년 간 임금상승을 방관하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 유럽 경제 침체, 미국 금리인상 전망, 루피아 약세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자, 실업률 감소를 위해 신발과 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5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어 품





부한 노동력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해야 하는 점이 과제다.

노동집약 제조업체들은 한편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술 향상과 자동화로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파크랜드는 고가의 첨단장비들을 과감하게 도입해 종전에 사람 손으로 하던 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해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정상급 신발제조업체로 끌어올렸고, 급등하는 임금에 대비하고 있다.

서부자바주 반둥 소재 남남패션 이선형 사장은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 운송,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노동의 질도 생산품의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3~5년 정도의 기술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 기간 중 생산력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장은 “자재의 국산화, 공정의 자동화,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특히 생산비의 65%가 재료비인 브래지어의 경우는 이 비용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체들이 잠재력이 풍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수출시장 위축에 대한 방안이다. 신발 브랜드 이글과 스포텍, 스폰지 브랜드 하일론, 박스 제조업체 보성 등이 이미 내수시장에 진출해 자리를 잡았고, 가발제조업체 성장과 란제

리 제조업체 남남패션은 내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현지시장 특성에 맞추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합리적인 미래예측과 협력 파트너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대비책도 필요하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 복지와 자녀 교육 등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지방에 근무할 경우 저녁이나 주말에 심신을 재충전하고 여가를 즐기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재습득할 기회가 적다. 이들이 경력이 쌓이는 만큼 신기술을 배우고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한인 공동체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또 지방에는 한국인 자녀를 교육할 교육기관도 열악하다. 유치원 때부터 자카르타나 주변 대도시에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지방근무자들이 많았다. 한국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한국어를 포함해 한국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 보였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유연하게 인도네시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생존하고 번영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그 사람 - 하리다르소노 (Harry Darsono)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박물관에 들어서면 하리의 피아노 소리와 함께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감미로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듯한 의상, 경쾌하고 강렬한 선명한 그림, 품위 있는 하얀 드레스, 금박의 화려한 검은 드레스가 어울려 일체히 소곤거린다. 꿈은 아름답다고. 우아한 곡선의 황홀함과 하리의 열정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박물관은 또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진다.

하리 다르소노, 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기 역할에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 나와 남을 존중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면 그는 분명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리 다르소노 박사는 1950년 7개월의 조산아로 태어났다. 과민증이 있어서 오감이 자극을 받는 순간에 그의 뇌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과

민증에 걸릴 때마다 뇌가 많은 정보를 받아서 머리가 아주 아팠다.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플라스틱 병으로 때리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시간도 2.5 시간 정도이다. 많은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 아직도 밤늦게까지 활동을 멈추지 못한다. 9살에 5번이나 학교를 중퇴할 정도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가지고 있었다. 하리는 남보다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과민증으로 인해 18살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대신 그림이나 예술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말을 표현했다. 특히 그림은 아주 빠르게 그릴 수 있다. 박물관도 역시 하리가 3분 만에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건축되었다. 하리는 프랑스의 건축 Baroque식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59년에 하리는 프랑스(파리)에서 언어 치료를 받았다. 소리를 아주 좋아하

는 하리는 밤이 되면 모든 것으로 소음을 만들어서 5일 만에 파리의 기숙사에서 퇴사 당한다. 6명의 친구와 함께 home schooling을 했다. 친구들은 토요일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리는 home alone 영화처럼 혼자 있게 되었다. 정말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가끔 그 외로웠던 시간들이 떠오른다면 ADHD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웃어주라고 말했다. 파리에서 4명의 치료사에게서 치료를 받았다. 그들에게 자바와 발리의 가믈란과 춤을 배웠다. 느린 자바 식 보다는 다이내믹하고 활동적인 발리 식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음악과 춤, 유도, 조각을 통해서도 과잉행동을 치료받았다. 어느 날, 치료사가 하리에게 고치를 주었는데 하리는 4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고치를 계속 보고 있었다. 치료사가 하리에게 직물을 배우게 한다. 이렇게 그는 운명처럼 실, 바늘, 실크와 만나게 된다. 박물관 입구에 하리가 언어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하던 물레가 전시되어 있다. 바텍 같은 인도네시아의 문양이 보다는 로코코 무늬를 많이 그려 왔다. 실력을 가진 하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모르게 계속 작품을 만들어 돈을 벌었다. 또 입구에는 하리가 뉴욕 경매 시장에서 산 하얗고 우락 왕조의 선미도 볼 수 있다. 윗부분에 닭이, 아래 부분은 해물(새우, 오징어) 조각이 있었다.

HDC (Harry Darsono Couture)는 하리박사의 의상 브랜드이다. 꼬뛰르(Couture)는 원래 실과 바늘이라는 뜻이지만 지금은 유명디자이너 제품을 상징한다. 실과 바늘을 통하여 하리는 집중의

힘으로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의 브랜드명이 된 것이다. 하리는 작품을 만들 때 성경과 지금의 그를 있게 한 트로피를 본다. 박물관 지붕도 트로피 조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어릴 때 선생님이 항상 하리를 칭찬하면서 준 그 트로피를.

하리는 프랑스어로 쓴 역사(특히 인도네시아의 국가 영웅)와 철학에 관한 책은 70권, 영어로 번역된 책은 13권이나 편찬했다. 모든 책들은 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있다. 파리 생활을 하다가 영국 Oxford 대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배웠다. 학위를 완료하기 전, 1974년에 인도네시아로 잠깐 돌아왔다. 당시 자카르타 시장 Ali Sadikin의 부인이 하리가 제작한 옷을 입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옷을 많이 제작한 후에 철학 박사를 받으러 영국으로 돌아갔다. 학위를 받고 인도네시아에 귀국하며 일을 다시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을 위해서 진력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하려면 학위를 감추어야 한다고 했다. 하리는 어머니 말씀대로 학위를 내세우지 않고 정신병자, 불우한 이웃들, ADHD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1994년, 화재로 집뿐 만 아니라 피아노, 하리가 좋아하는 책 “영국 성공회 (Anglican)의 성경”과 “네덜란드의 향상” 도 탔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스케치들과 그가 만든 옷은 타지 않았다. 타지 않은 작품들로 Grand Hyatt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96년 집을 박물관으로 건축한다. 작품을 경매에서 혹은 유럽 왕실의 도움으로 다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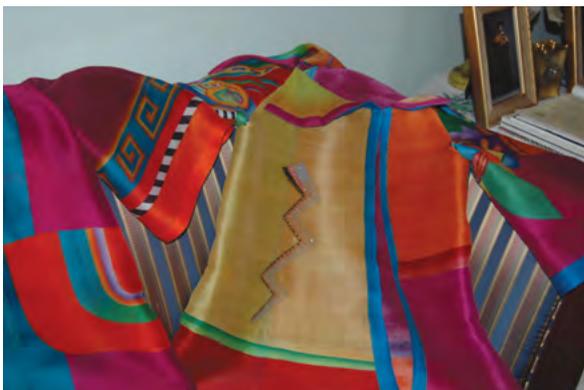


집하여, 2001년 드디어 박물관으로 개관된다. 하리는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에도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수집된 작품이 많아져서 친구가 하리 모르게 발리의 울루와뚜에 박물관으로 사용할 Harry Darsono Village를 지어주었다. 그러나 그 후계자가 될 친구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 하리는 많은 이별을 했지만 이때만큼 흔들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오감이 칼날 같은 남자가 겪었을 아픔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오른 쪽과 왼쪽의 그림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하리 디자인의 특징이 되었다. 다름을 인정하는 인도네시아 문화가 하리의 작품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리가 제작한 작품은 ‘Adibusana’로 불린다. ‘adi’는 ‘꼭대기’라는 뜻이며 ‘busana’는 ‘패션, 의상’이라는 뜻이다. 전시된 24점으로 만들어진 드레스는 하리가 태국의 씨리킷 왕비에게 제작해 준 것이다. 무게가 648킬로이다. 치마



안에 다이아몬드가 보인다. 드레스 4개를 완성하기까지 2년이 걸렸고 하리에게 돌려준 드레스는 3개였다. 하얀색 드레스는 다이아

푸치니의 ‘나비부인’ 의상



나 비가 입던 것이고 빨간색 드레스는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가 입던 것이다. 다이애나 비가 쓰던 왕관과 모자도 보관되고 있다. 하리는 방문객들이 왕관을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 모자를 쓰고 하리의 작품을 입고 유럽 왕궁에 초대된 귀족처럼 뽐내어 본다. 다이애나 비의 할머니가 하리 양어머니의 언니라서 어릴 때부터 다이애나 비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손으로 그린 문양이 없고 수백만의 실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 이 옷을 제작한 후에 하리는 눈을 뜰 수 없었다고 한다. ADHD인들의 음성 치료를 돕기 위해서 제작한 한 것이라고 한다. 하리는 예술과 디자인 학교에서 오페라, 발레, 연극 의상 디자인을 배웠다. 셰क्स피어의 주인공들이 입었던 무대 의상이 품위 있게 전시되어 있다. Julius Caesar 역의 의상, 구리와 철로 만들어진 Othello 의상,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 의상이 날개를 흔들어 보이고 서 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의상은 그 스토리처럼 애잔해 보인다. 물론 모두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리는 화려한 프랑스의 Baroque식 그림을 많이 그리고 바딕 천도 많이 만들었다. 1976년에 한국에서도 제작되었다. 1979년부터는 다른 전통 천을 만들고 세계로 알린다. 피아노를 잘 치는 하리는 여러 종류의 피아노를 보관한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독일에서 제작된 피아노, 오스트리아에서 제작된 피아노, 나폴레옹 3세 피아노, Frederic Chopin이 쓰던 클래식 피아노도 있다. 피아노 외에 하프를 탈 줄 알고 음악을 좋아한다.

자띠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 가까이에 하리가 말을 못할 때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다. 그림 뒤쪽을 보면 대나무 뿌리로 조각한 할아버지 모습의 예술품이 보인다. 하리 시가 적힌 그림도 있다. 그는 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부패, 돈이 많은 정부기관을 비판하고 가난한 하층민 및 실업자를 위로한다. 이처럼 그는 사회에 대해서도 무한히 열려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리가 그린 스케

치가 수북이 쌓여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영부인 스케치이다. 띤 (Tien) 영부인의 트로피를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영부인이 걸어가는 모습과 전통 칼 keris를 그렸다. 인디고 초능력을 가진 하리는 영부인의 죽음을 예언했다. 띤 여사는 스케치처럼 keris 칼로 돌아가셨다. 하리 다르소노는 정말 대단한 디자이너이다. 의상뿐만 아니라 소파와 도자기, 자동차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다이애나 비가 사용하던 차잔도 디자인을 했다. 영국 도자기 Royal Doulton 이나 Aynsley 차잔 중에서 동양적인 문양은 하리 다르소노 디자인이 많다. 그는 스위스의 세계 금속 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컨설턴트와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다. 서울과 타이베이, 시드니에 큰 무대를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는 여러 분야에 활동을 아주 많이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2대 대통령 수하르토에게서 ‘예술과 디자인, 수공예, 의상, 교육 선구자’ 의 상을, Andrew 왕에게서도 상을 받았다. 영국 여왕 Elizabeth에게서 ‘Sir’ 라는 직함을 받았다. 박물관에 걸려 있는 사진을 통해서 유명 인사가 하리 박물관을 많이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영국의 Anne 왕비, 2007년에 영국의 Andrew 왕자, 폴란드 대통령 주입, Megawati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이 하리 박물관을 방문했다. 영부인께 한복도 제작해 드렸다.



하리 다르소노 재단법인의 로고의 좌우에는 천 그림이, 중간에는 장갑 그림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온몸은 천으로 덮인다. 이처럼 인간과 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리는 말하고 있다. 언급된 손은 영혼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다. 벼와 목화 그림은 Pancasila 처럼 사회정의를 상징한다. 벼와 솜 위에 있는 불은 힘과 정신, 성경에 언급된 성령을 상징한다. 하리는 신이 그에게 영혼과 재능을 주신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재능보다는 굳은 의지와 꾸준한 노력, 일에 대한 열정과 고집, 인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준 이 거대한 축복을 신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 하리 다르소노.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필요한 자리를 지키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하리의 박물관에는 언제나 <I have a dream>이 흐른다. 설사 꿈이 사라져도 그 찬란한 힘으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내는 것.



*개인 입장 불가 *12명~18명
 *월요일-토요일 9:00~12:30
 *후원금: 1인 185,000 루피아
 Jl. Cilandak Tengah No. 71
 Jakarta 12430
 Indonesia
 (021) 70650928, 7668553
 팩스: (021) 7668554
 메일: hdc71@cbn.net.id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영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수상이라는 평가가 즐비한 위스틴 처질은 (Winston Churchill, 1874-1965)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영어 사용 민족의 역사》 등의 저술과 전시상황 연설문에서 탁월한 문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처질은 열등생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그를 위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 일까요?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광이었던 처질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설령 책이 당신의 친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당신과 일면식이 있는 관계로 묶어둘 수는 있지 않은가. 설혹 책이 당신의 삶에서 친교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한다 해도, 아는 체하며 가벼운 인사 정도는 반드시 하고 지낼 일이다.”

요즘은 SNS의 발달로 저 또한 책 보다는 핸드폰을 들고 짧은 기사를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연초인가 싶더니 어느새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이면 항상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매년 새해에는 독서량을 좀 늘려야지... 라고 각오만 했었는데 올해는 꼬옥 실천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진 않으시겠죠?

명언 준비해 봤습니다.

처칠의 보석 같은 명언

연은 순풍이 아니라 맞바람이 불 때 가장 높이 오른다. -Kites rise highest against the wind -not with it.

성공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고 실패가 치명적이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지속하는 것이다.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전진하면서 이뤄진다. Success consists of going from failure to failure without loss of enthusiasm.

꾸준한 노력(힘이나 지능이 아니라)이야말로 잠재력을 깨울 열쇠다. Continuous effort - not strength or intelligence - is the key to unlocking our potential.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난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에서 기회를 본다. 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이다. Attitude is a little thing that makes a big difference.

용기는 일어서서 말할 때에도 필요하지만, 자리에 앉아 경청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Courage is what it takes to stand up and speak; courage is also what it takes to sit down and listen.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업적은 아내를 설득해서 나와 결혼하게끔 한 것이다. My most brilliant achievement was my ability to be able to persuade my wife to marry me.

-처칠이 처음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해 합동연설회를 할 때 상대후보가 인신공격을 했다.

“처칠은 늦잠꾸러기입니다. 저렇게 게으른 사람을 의회에 보내어야 되겠습니까?” 처칠은 천연덕스럽게 응수했다. “저 후보도 저처럼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처칠이 수상이 된 뒤 또 의회에 지각하고 말했다. “다음부터 회의 전날에는 꼭 각방을 쓰겠습니다.”

>엄마 부탁해요<

Mereka terlihat semakin **lengket** 제네, 점점 둘이 붙어다니네요. (친밀하네요)

진애와 훈재(일명 똑딱이 총각)이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진애 부가 얘기 합니다. “점점 둘이 붙어다니네요” Lengket은 형용사로 딱 들러붙는, 달라붙다, 아주 친밀하다. (melekat) 또는 적합한 알맞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 참고) Pe가 붙어 Pelengket = Perekat명사화 되면서 접착제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사어로는 lekat, temple, rapat, erat, mesra 등이 있으며 문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1. **Lengket**: 어떠한 형태의 사물이나 물건이 아주 가까이 밀접해 있음을 뜻한다. 달라 붙여 있음, 찢득거림, 찰기, 쫘독함을 표현한다.

[Sesuatu yang lengket sehingga cenderung/ membuat benda menjadi menempel]

-Tumpahan sirup itu membuat lantai menjadi **lengket**.

시럽이 쏟아져 바닥이 찢득거린다.

-Perekat yang kering tidak dapat menempel karena tidak **lengket**.

마른접착제는 접착력이 없어서(물건이) 붙지 않는다.

2. **Lekat**: 점착성이 있어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떼기 어려운 형태의 점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부착됨, 붙어 있음

[Keadaan dua benda atau lebih menempel kuat/erat dan rapat hingga sulit dilepas]

- Piring yang pecah itu **dilekatkan** kembali dengan menggunakan lem super. 깨진 접시를 초강력 본드를 이용해 (단단히) 붙였다.

- Es akan **melekat** ditangan jika terlalu lama dipegang. 얼음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손에 달라 붙는다

3. **Tempel**: 어떠한 두께 이상의 물체를 서로 가져다 붙인다는 뜻을 가지며 매달리다,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다. 고착시키다.로 사용된다.

[Keadaan dua benda berdekatan satu sama lain dengan atau tanpa bahan lengket.]

- Pihak HRD **menempelkan** peraturan perusahaan di depan pintu kantor 인사관리팀은 사규를 사무실 입구에 붙였다

- Beberapa daun **menempel** di bajuku.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내 옷에 붙은거지.

4. **Rapat**: 어떠한 거리나 형태의 틈이 없이 붙어 있는 밀착된 이란 뜻을 갖는다. (틈새가 없는, 촘촘한, 밀접한)

[Jarak dua benda atau lebih yang tidak renggang (dekat sekali), atau berdekatan tanpa celah.]

- Pintu harus ditutup dengan **rapat** agar nyamuk tidak masuk 모기 안 들어오게 문을 꽂아 닫아야 한다. (틈 없이 밀착되게)

- Padi tidak boleh ditanam terlalu **rapat**. 벼는 너무 촘촘히 심으면 안 된다. (틈이 없이)

5. **Erat**: 단단한, (어떠한 관계나, 상태가) 견고한 강한, 아주 썸 의 뜻을 갖는다.

[1. Kuat sehingga tidak mudah lepas (tentang ikatan, pegangan)]

아주 친한, 우정 등이 밀접한

[2. Karib benar (tentang persahabatan/hubungan)]

- Pegangan yang **erat** saat wahana itu meluncur ke bawah.

기구가 아래로 내려 갈 때 아주 꽉 잡아야 한다.

- Hubungan mereka semakin **erat** karena memiliki banyak kesamaan.

공통사가 많은 그들은 점점 돈독해(밀접한) 진다.

6. **Mesra**: 연인들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때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며(마음을 빼앗긴) 그 외 가까운 친밀한 관계표현 및 들러붙어 하나가 된 또는 아주 친밀한 상태의 우정등을 표현한다.

[Hubungan kasih sayang yang mendalam di antara dua orang atau lebih (hubungan asmara, persahabatan, dll)]

- Meski sudah puluhan tahun menikah, sepasang kakek-nenek itu masih **mesra**.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혼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정하다

-Di Eropa, kita dapat menemukan banyak anak muda yang **bermesraan** di tempat umum.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젊은이들이 애정표현(밀어를 나눈다)을 한다.



순간 & 영원



저들의 손에 들린 무기가 악기였으면 좋겠네
저들의 가방에 담긴 탄알이 꽃씨였으면 좋겠네

어두운 하늘을 날아올라

햇살을 춤추게 하고
꿈을 깨워 꽃피우는, 그런
무기와 탄알이라면 좋겠네

저들의 불을 물들인 새벽빛이... 그랬으면 좋겠네

2015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USD)
1	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5	19,963
2	한인회 명예고문	김재유	PT. DONG SUNG INDONESIA	2015	5,000
3	한인회 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5	20,000
4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5	10,000
5	한인회 수석 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5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김동수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2015	(Rp.)71,000,000
7	한인회 부회장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5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2015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5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희년	PT. DAEWOO SECURITIES INDONESIA	2015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5	5,000
12	한인회 부회장	배응식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2014-2015	10,000
13	한인회 부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15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재학	PT. KEB HANA BANK INDONESIA	2015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5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이진수	PT. SUNG BO JAYA	2015	5,000
17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2015	5,000
18	한인회 부회장	최광수	PT. BIG STAR	2015	5,000
19	한인회 부회장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2015	5,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SWANA PERKASA	2015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5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석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5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15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15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김우재	PT. KOIN BUMI	2015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박현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5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15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송재선	PT. PUTRA HANKUK	2015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2015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2015	1,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5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5	(Rp.) 13,460,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2015	1,000
34	한인회 자문위원	최정남	PT. GLOBAL FIBERINDO	2015	1,000
35	한인회 자문위원	현상범	PT. INAMEN JAYA	2015	1,000
36	한인회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5	1,000

37	한인회 이사	김 광 현	KUALA GROUP	2013/2015	(Rp.) 27,500,000
38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5	1,000
39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5	1,000
40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5	1,000
41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SJ GLOBAL INDONESIA	2015	1,000
42	한인회 이사	김 종 성	PT. BONGMAN INTERNATIONAL	2013-2015	2,000
43	한인회 이사	김 종 현	PT. KOIN BUMI	2015	1,000
44	한인회 이사	김 현 재	PT. TOUR 153	2014-2015	1,986
45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5	1,000
46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5	1,000
47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5	1,000
48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JAYA	2015	1,000
49	한인회 이사	서 영 룰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5	1,000
50	한인회 이사	서 준 형	PT. TACHYON INDO	2014-2015	2,000
51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YMER JAYA	2015	1,000
52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 IL JAYA	2015	1,000
53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INDONESIA	2015	1,000
54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5	1,000
55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5	1,000
56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INDONESIA	2015	1,000
57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5	1,000
58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5	1,000
59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5	1,000
60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5	1,000
61	한인회 이사	윤 조 현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5	1,000
62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NGARAN INDAH BUSANA	2015	1,000
63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PT. LSW	2015	1,000
64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5	1,000
65	한인회 이사	이 윤 상	PAKUWON GROUP	2015	1,000
66	한인회 이사	이 주 한	PT. MEDISON JAYA RAYA	2014-2015	2,000
67	한인회 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5	1,000
68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5	1,000
69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JAYA	2015	1,000
70	한인회 이사	임 성 필	PT. LSP INDONESIA	2014-2015	2,000
71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INDONESIA	2015	1,000
72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INDONESIA	2015	1,000
총 금액					US\$ 190,949
					Rp. 125.460.000

2015년 안인외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2015년 12월 1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1	승은호	2015	300,000
2	신기엽	2015	300,000
3	조규철	2015	300,000
4	김재민	2015	300,000
5	신규태	2015-2016	600,000
6	김영환	2013-2015	300,000
7	이현	2013-2015	300,000
8	최우범	2014-2015	300,000
9	최석일	2015	300,000
10	오세명	2015	300,000
11	김대근	2015	1,300,000
12	김영울	2015	1,300,000
13	김창근	2015	1,300,000
14	조용재	2015	1,300,000
15	김양임	2015	300,000
16	안창섭	2015	300,000
17	HORISON FORBIS HOTEL	2015	3,000,000
18	최양기	2015	300,000
19	홍석영	2015	300,000
20	강덕재	2015	300,000
21	승진아	2015	300,000
22	오세윤	2015	300,000
23	강희중	2015	300,000
24	김평수	2015	10,000,000
25	PT. INDOKO SAKTI	2015	1,300,000
26	한덕수	2015	300,000
27	박재한	2015	300,000
28	배응식	2015	300,000
29	이순형	2015	300,000
30	이호완	2015	300,000
31	류호한	2015	300,000
32	전영돈	2015	300,000
33	양영연	2015	300,000
34	김광현	2013-2015	900,000
총 금액			Rp.28,500,000

[한인회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매주 목요일 바티실습 10:00-12:00

290회 문화탐방 Kota Tua (제5차정기투어)

일시: 2016년 1월 9일(토) 9:00-14:00

집결: 카페바타비아

진행 및 신청:(SMS/KT)안미경 수석팀장 081514216766

최우호 팀장 081290478845

회비: 30만루피아(비회원 35만) 점심 등 일체 포함



올 한해 한인뉴스에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한인뉴스와 함께 한 편집위원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	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렘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석양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훈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가입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인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짜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짜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짜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짜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횡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짜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보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짜까랑) 8983 6047
 아리랑(짜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가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짜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횡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보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	----------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아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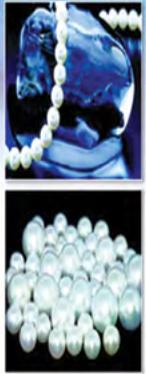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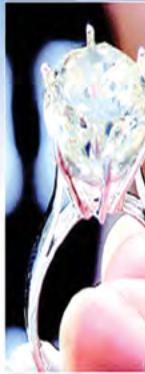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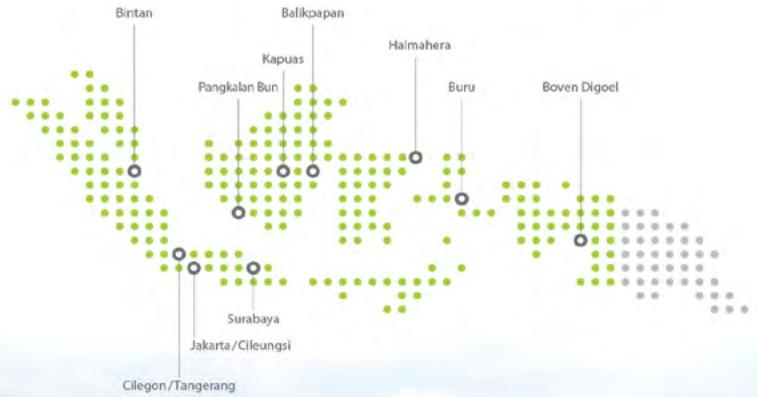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지역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이노메이트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디자인 회사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과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